

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고 용 취업자/실업자/물가

금 융 시장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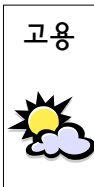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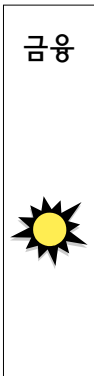
경기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개선 미비
 - 산업생산은 통신장비, 음식료품 등의 큰 폭 하락세로 인해 8월중 15.3% 감소
 - 생산자 제품재고는 섬유·의복을 제외한 전반적인 감소로 인해 8.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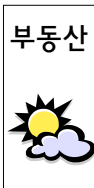
고용

- 서울의 고용여건 회복세 불투명
 - 취업자는 청년층(-2.2%)을 중심으로 1.0% 감소하였고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의 가격 인상으로 8월중 소비자물가는 0.3% 상승



금융

- 금리 상승세 지속
 - 정책금리 조정 가능성 및 경기회복 기대, 주가 상승 등으로 금리 0.44%p 상승
- 종합주가지수 1994년 11월의 사상최고치 갱신
 - 경기회복 기대,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지속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12.71% 상승
- 원/달러 환율 상승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월초반 급락 후 월후반 지속적인 상승으로 8월 대비 0.25% 상승
- 서울의 창업동향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개선 경향 뚜렷
 - 지난해 8월에 비해 신설법인수는 9.7% 증가, 어음부도율은 0.01%p 증가



부동산

- 서울의 건설경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에 비해 3.3%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 둔화
 - 주택 매매가격은 7월에 비해 0.4% 상승함으로써 상승폭 크게 둔화

<표> 8월 주요경제 지표의 증감

(단위: %, %p)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9)
경기	산업생산	-1.2	-16.4	-15.6	-14.0	-15.3
	생산자 제품재고	14.6	5.7	0.7	-3.9	-8.9
고용	실업률	0.0	0.0	-0.1	0.0	-0.1
	소비자물가	0.8	-0.3	-0.3	0.3	0.3
금융	국고채(3년)	-0.56	-0.09	0.35	0.21	-0.07 (0.44)
	환율	-1.45	1.1	1.76	0.14	1.14 (0.25)
부동산	건축허가면적	40.8	-17.4	4.5	-41.9	3.3
	주택매매가격	-0.6	0.6	1.4	1.4	0.4

주: 증감의 비교시점은 전년동월대비임. 단 금융, 고용, 주택매매는 전월대비임
 기상도의 그림은 경기(산업생산), 고용(실업률), 금융(증권), 부동산(건설경기)의 상태를 나타냄
 금융의 () 안은 2005.9 자료임

| 생 · 산 |

서울 산업생산 감소폭 확대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8월에 비해 5.5% 증가
- 자동차 산업의 분규영향으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산업생산의 증가세 둔화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21.8%), 영상음향통신(14.7%), 기타전기기계(9.3%)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계(-14.9%), 비금속광물(-8.3%), 섬유제품(-6.3%)등은 감소함

○ 서울 산업생산 하락폭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8월에 비해 15.3% 감소
- 지난 5월 이후 미미하나마 하락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중 다시 하락폭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의복 및 모피업의 생산감소 등 경공업 부분의 감소세 확대와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부문의 큰 폭 감소가 지속됨에 기인함

○ 경공업 부분 산업생산 하락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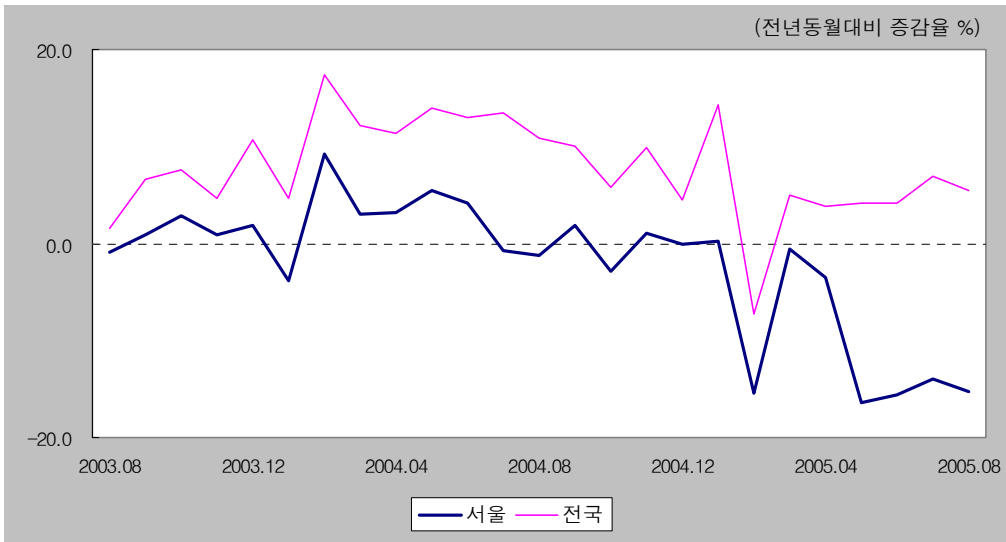
- 중공업부문은 4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8월중 30.1% 감소
-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통신 및 통신장비(-65.4%), 고무 및 플라스틱(-30.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3.8%), 기타기계 및 장비(-10.8%)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 4월 이후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8월중에 7.5% 감소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0.0%), 의복 및 모피(-7.6%), 인쇄출판(-5.8%)등이 감소한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17.2%), 섬유제품(13.2%)등이 증가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국	10.9	4.2	4.1	7.0	5.5
	서울	-1.2	-16.4	-15.6	-14.0	-15.3
	중공업	-5.0	-38.2	-33.0	-28.5	-30.1
	경공업	0.7	-3.9	-5.6	-6.5	-7.5
전월비	전국	-0.2	0.5	2.3	1.2	-1.6
	서울	-0.7	-13.5	-0.5	0.2	-2.1
	중공업	-3.2	-31.5	5.7	-1.1	-5.5
	경공업	-2.8	-2.1	-4.8	1.8	-3.9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 · 하 |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세 지속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 둔화

-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8월에 비해 5.8% 증가
- 건설용 및 연료 부문의 내수출하 감소로 인해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 둔화
- 세부업종별로 반도체(22.0%), 영상·음향통신(14.0%), 자동차(8.2%)등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기(-14.4%), 비금속광물(-6.4%)등은 감소함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하락폭 증가

-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8월에 비해 16.9% 감소함
- 3개월 연속 하락폭 확대가 이어졌으며 8월중에도 여전히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냄
- 이는 서울의 주요 제조업인 섬유제품의 제품출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음식료품, 인쇄출판 등 대부분 산업의 제품출하 감소세에 기인함

○ 중공업 및 경공업 모두 제품출하 감소 지속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8월에 비해 35.7% 감소함
- 세부업종별로 중공업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70.7%), 고무 및 플라스틱(-31.4%)등이 큰 폭으로 감소
- 경공업부문은 지난 6월 이후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8월중 5.8% 감소하고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34.0%), 인쇄출판(-4.9%), 의복 및 모피(-2.0%)등이 감소하였으나 섬유제품(11.4%)에서 증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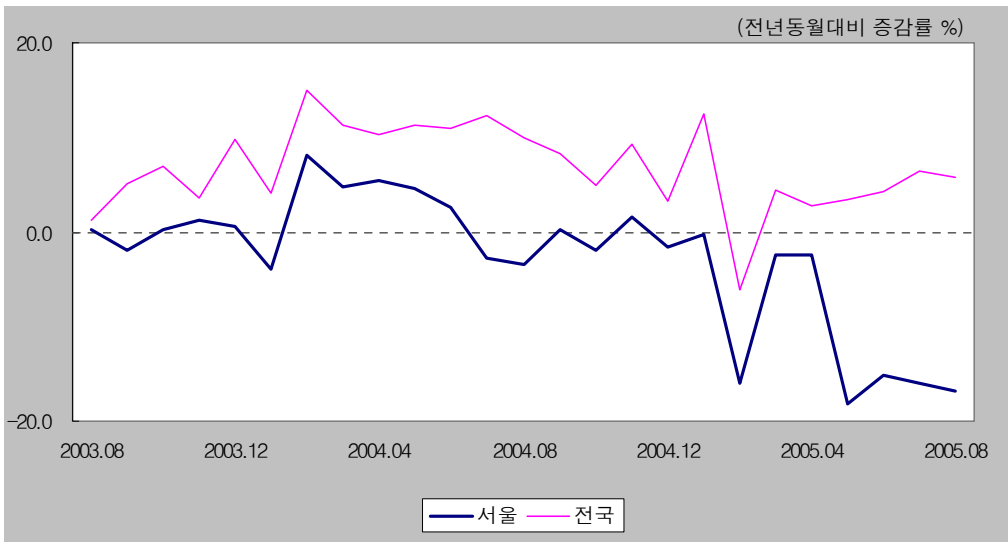
〈표〉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국	9.9	3.5	4.3	6.4	5.8
	서울	-3.4	-18.2	-15.1	-16.2	-16.9
	중공업	-9.1	-40.8	-34.9	-37.0	-35.7
	경공업	0.2	-4.3	-2.8	-3.7	-5.8
전월비	전국	-0.5	0.3	4.3	0.8	-0.8
	서울	-1.9	-17.2	3.1	-3.0	-2.7
	중공업	-2.3	-39.1	7.0	-6.2	-0.3
	경공업	-1.7	-2.7	-0.9	0.4	-3.8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중공업 부문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8월에 비해 5.3% 증가함
-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재고감소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제1차 금속(30.2%), 화학제품(23.4%), 기계장비(12.9%)등이 증가함
- 반면, 사무회계용기계(-24.3%), 자동차(-11.2%), 섬유제품(-7.1%)등에서 감소함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지속

-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8월 대비 8.9% 감소함
- 지난 4월 이후 제품재고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 중공업 부문의 큰 폭 하락과 경공업 부문의 증가폭 둔화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중공업부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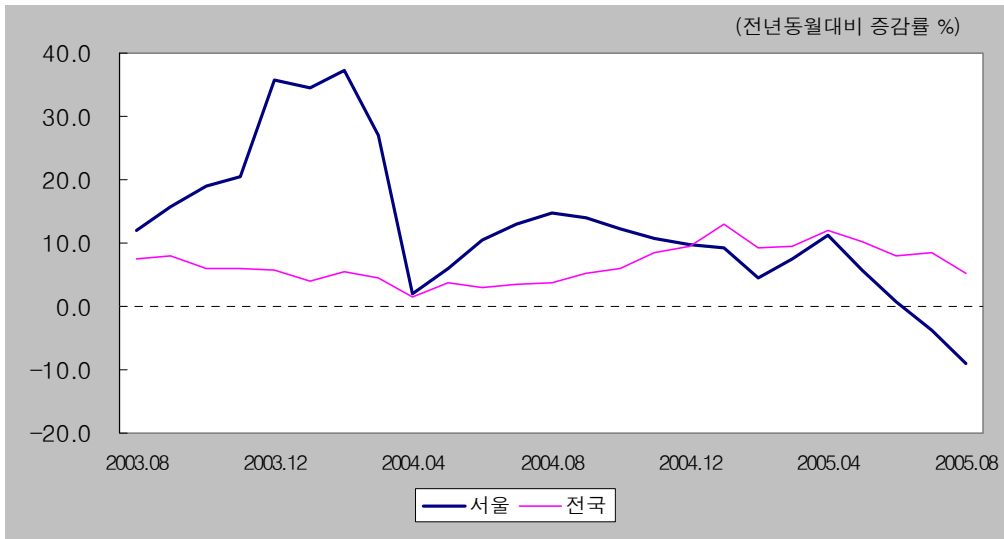
- 산업구조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 6월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8월중 34.5% 감소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65.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61.9%), 기타기계 및 장비(-52.7)등이 감소세를 주도함
- 경공업부문은 4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었고 8월중 3.8% 증가
- 세부업종별로 섬유제품(10.8%), 의복 및 모피(8.2%)가 증가한 반면, 종이제품(-44.2%), 가죽 및 신발(-25.3%)이 감소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국	3.6	10.3	7.9	8.5	5.3
	서울	14.6	5.7	0.6	-4.0	-8.9
	중공업	-8.5	-30.9	-29.2	-31.7	-34.5
	경공업	31.1	25.1	16.0	10.7	3.8
전월비	전국	0.5	0.8	-2.9	1.4	-2.5
	서울	3.3	-0.9	-1.4	-2.2	-2.1
	중공업	-1.6	-11.2	3.3	4.4	-5.6
	경공업	5.0	5.3	-3.0	-0.8	-1.6

주: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 전년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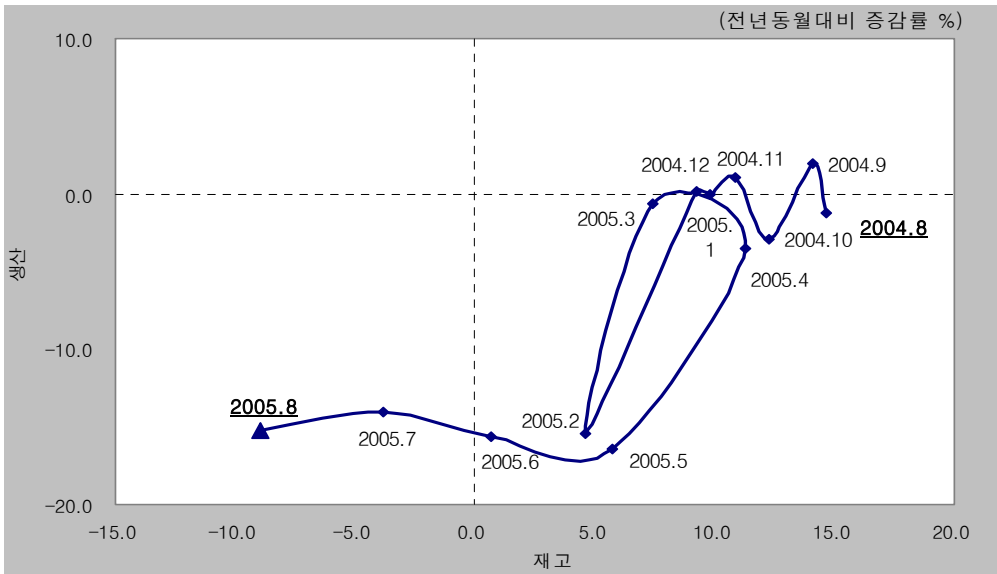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산업생산 감소로 서울의 경기 회복세 불투명

○ 서울의 제조업부문 경기개선 미비

- 생산·재고의 경기국면 분석에 의하면 재고가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전국의 경향과는 달리 서울 제조업 부문은 경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
- 산업생산은 8월중에 다시 하락폭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큰 폭 감소세 지속
- 생산자 제품재고는 8월중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그림〉 서울의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 서울의 8월 재고율 소폭 증가

- 전국의 재고율은 95.0%로 지난달보다 1.4%p 감소
- 서울의 재고율은 149.3%로 지난달보다 0.1%p 증가하였으며 지난 4월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재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기인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구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재고율	전국	95.5	103.2	96.0	96.4	95.0
	서울	135.7	155.1	148.0	149.2	149.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여건 개선 미비

○ 전국의 취업자 감소폭 증가

- 전국의 취업자는 22,847천명으로 지난달 비해 1.5% 감소
- 이는 지난달에 비해 더 큰 감소를 보인 것인데,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업, 건설업의 감소와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따른 것임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414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3.8% 감소를 나타냄

○ 서울의 취업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소폭 증가

- 서울의 취업자는 4,858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세로 인해 지난달보다 하락폭 증가한 것임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15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2% 감소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각각 0.5%와 1.7% 감소함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감소

- 제조업은 지난달에 비해 4.1% 감소한 765천명으로 200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취업자 수를 나타냄
-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18천명(-0.4%)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근 7개월간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을 주도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8월 들어 32천명(-1.9%) 감소
- 이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3천명(0.9%) 증가한 1429천명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자영업주 및 상용근로자 감소

- 종사자 지위별로 자영업주는 지난달에 비해 1.6% 증가하여 감소세에서 소폭 반등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는 지난달에 비해 1.8%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6.6%와 2.9% 감소함

- 직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천명(21.7%), 서비스·판매종사자가 1천명(0.1%) 증가한 반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2천명(-2.2%), 사무종사자가 7천명(-0.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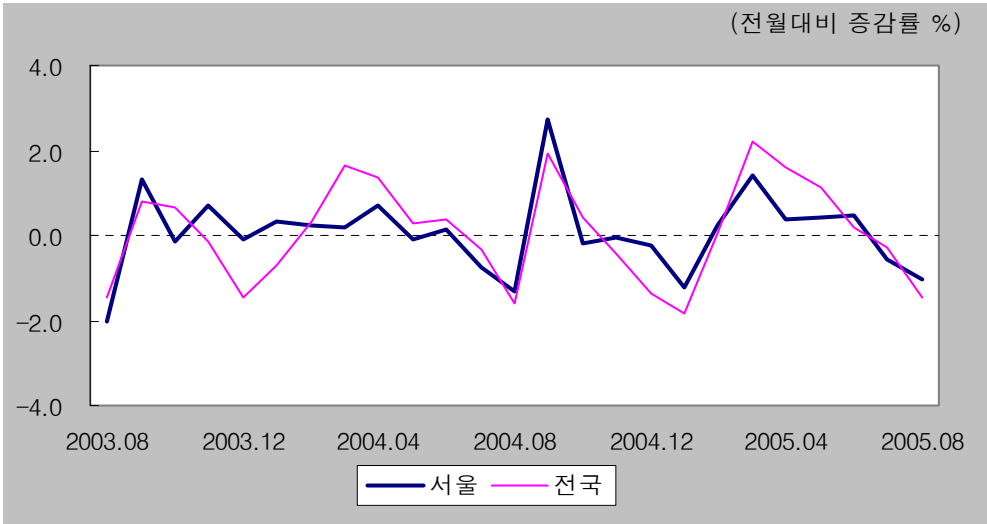
〈표〉 2005년 8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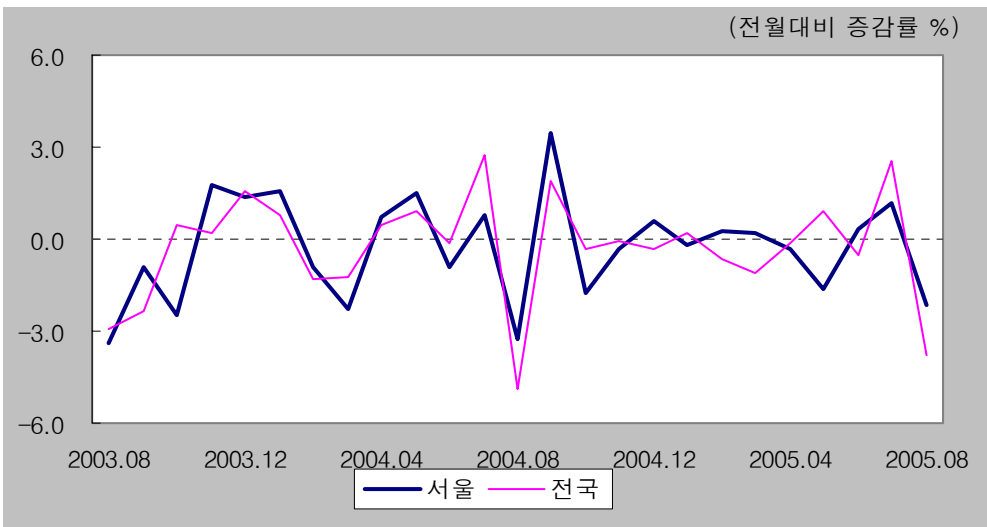
구 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381.6	23184.3	22846.7	465	2.1	-338	-1.5	
	서울	4748.3	4907.5	4857.5	109	2.3	-50	-1.0	
청년층	전국	4486.5	4588.1	4414.8	-72	-1.6	-173	-3.8	
취업자	서울	1121.7	1140.3	1115.6	-6	-0.5	-25	-2.2	
성별	남자	2754.6	2819.3	2803.9	49	1.8	-15	-0.5	
	여자	1993.7	2088.3	2053.6	60	3.0	-35	-1.7	
서울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5	6.4	6.5	2	30.0	0	1.6
		광공업	795.8	798.5	765.9	-30	-3.8	-33	-4.1
		제조업	794.9	797.6	765	-30	-3.8	-33	-4.1
		SOC 및 기타서비스업	3947.5	4102.7	4085.1	138	3.5	-18	-0.4
		건설업	402.1	425.7	429.9	28	6.9	4	1.0
		도소매·음식숙박	1380.5	1416.5	1429	49	3.5	13	0.9
		사업개안공공서비스	1641.2	1738.6	1706.4	65	4.0	-32	-1.9
		전가·운수·통신·금융	523.7	521.9	519.9	-4	-0.7	-2	-0.4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률 |

실업률 소폭 감소

○ 전국의 실업률 소폭 감소

- 전국의 실업자는 842천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5.1% 감소
- 실업률은 3.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를 보였으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같은 수준임

○ 서울의 실업률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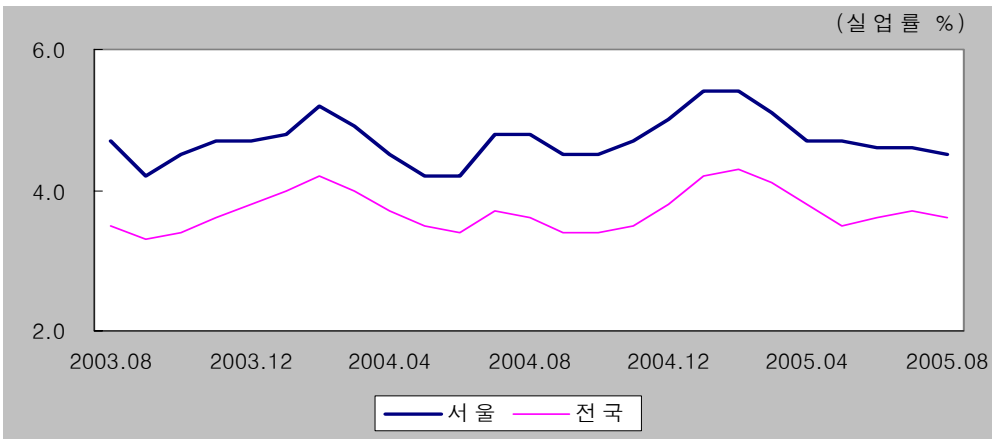
- 서울의 실업자는 231천명으로 지난달보다 3.1% 감소
- 실업률 또한 4.5%로 지난달에 비해 0.1%p 감소한 소폭의 감소세를 유지
- 하지만, 전국에 비해 0.9%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전히 서울의 고용여건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표〉 2005년 8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847.8	888	842.6	-5.2	-0.6	-45	-5.1
	실업률	3.6	3.7	3.6	0.0	-	-0.1	-
서울	실업자	241.2	238.3	231	-10	-4.2	-7	-3.1
	실업률	4.8	4.6	4.5	-0.3	-	-0.1	-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전국의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

-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0.3% 상승하고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료품 부문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 LPG를 중심으로 교통·통신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서울의 소비자물가도 0.3%의 상승하고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이는 석유류 가격상승과 채소류 가격상승으로 인한 교통통신 부문과 식료품 부분 등이 상승한데 기인함

○ 상품부문 및 서비스부문 모두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부문 물가는 농축수산물(1.6%), 공업제품(0.3%)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0.6% 상승
- 서비스부문 물가는 집세(-0.1%)가 하락한 반면, 개인서비스(0.2%)가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0.1% 상승
- 비목별로는 식료품(0.6%), 교통·통신(0.5%), 기타잡비(0.3%) 등이 지난달에 비해 상승한 반면, 가구집기·가사용품(-0.1%)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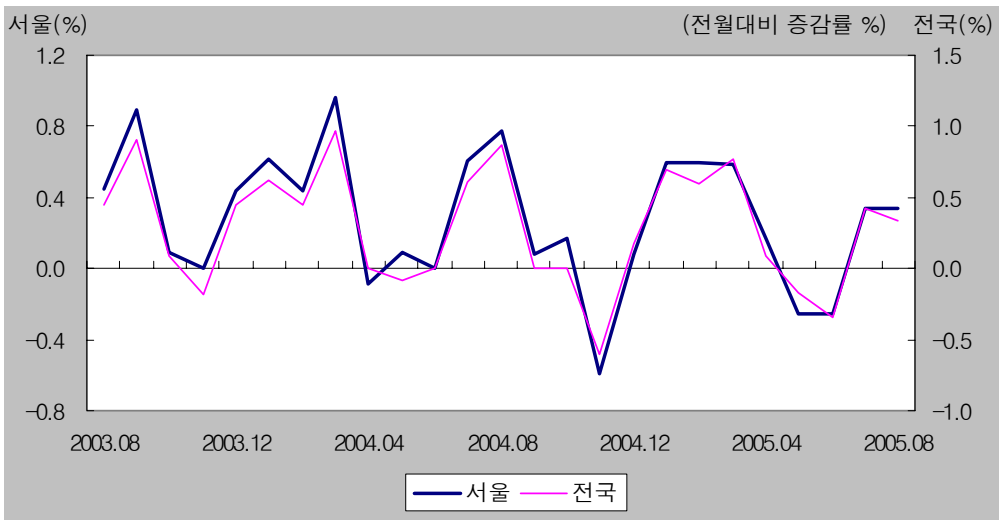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위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5%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3.8%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국	4.8	3.1	2.7	2.5	2.0	
	서울	4.9	2.8	2.6	2.3	1.9	
		상품	7.3	4.2	3.3	3.5	2.1
			서비스	3.3	2.0	2.0	1.5
		생활물가	7.0	4.9	4.3	3.9	2.9
		신선식품	25.0	8.8	5.6	2.5	-3.4
전월비	전국	0.9	-0.2	-0.3	0.4	0.3	
	서울	0.8	-0.3	-0.3	0.3	0.3	
		상품	2.0	-0.5	-0.8	0.6	0.6
			서비스	0.0	0.1	0.1	0.2
		생활물가	1.4	-0.4	-0.6	0.7	0.5
		신선식품	10.2	-4.1	-5.9	0.3	3.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장기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및 CD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9월 8일 급등 이후 경기회복 기대, 주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함으로써 지난달에 비해 0.44%p 상승한 4.60%를 나타냄
- 국채는 9월중 6.47조원 발행하고 3.20조원 상환되어 3.28조원 순증가함
- 회사채 수익률(3년)은 국고채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어 지난달에 비해 0.41%p 상승한 5.00%를 나타냄
- 회사채는 9월중 5.61조원 발행하고 2.99조원 상환되어 2.62조원 순증가함

○ CD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상승

- CD(91일)는 장기시장금리 상승, MMF의 대폭 감소에 따른 매입수요 둔화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0.42% 증가한 3.93%를 나타냄
- 콜금리(1일)는 지난달에 비해 0.03%p 상승한 3.28%를 기록

○ 장단기 금리차 증가세로 반전

- 장단기 금리차는 월초 0.91%p에서 월말 1.32%p 으로 지난달의 하락세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 %p, 말일기준)

구 분	2005.5	2005.6	2005.7	2005.8	2005.9	2005.10.25	전월비
금 리	국고채(3년)	3.67	4.02	4.23	4.16	4.60	0.44
	회사채(3년)	4.08	4.41	4.63	4.59	5.00	0.41
	CD(91일)	3.52	3.54	3.49	3.51	3.93	0.42
	콜금리(1일)	3.29	3.30	3.27	3.25	3.28	0.03
	장·단기 Spread	0.38	0.72	0.96	0.91	1.32	-
주 가	종합주가지수	970.21	1,008.16	1,111.29	1,083.33	1,221.01	12.71
	코스닥	471.48	503.21	546.68	503.95	571.95	13.49
	환률(VUS\$)	1,007.70	1,025.40	1,026.80	1,038.50	1,041.10	0.25

주: 장단기 Spread: 국고채-call금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률은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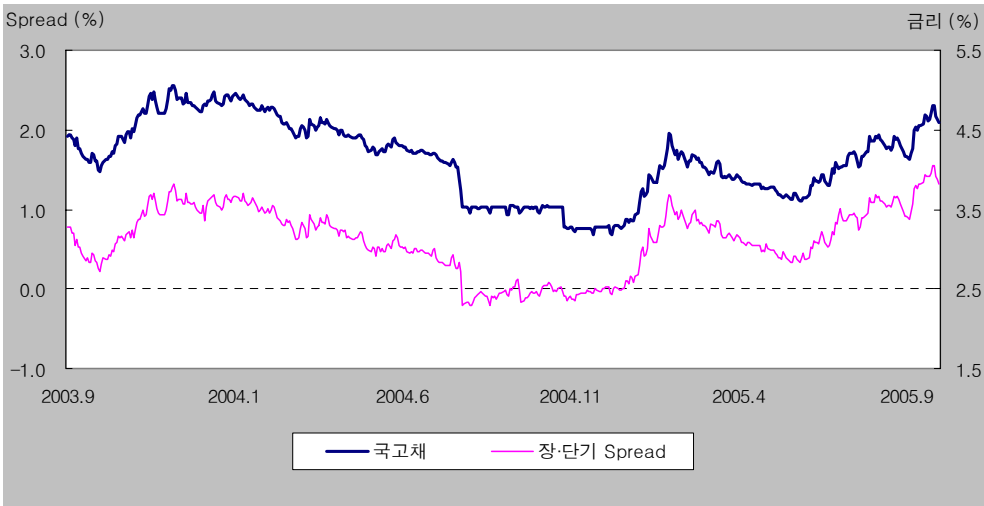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주가는 9월중 사상최고치 연이어 갱신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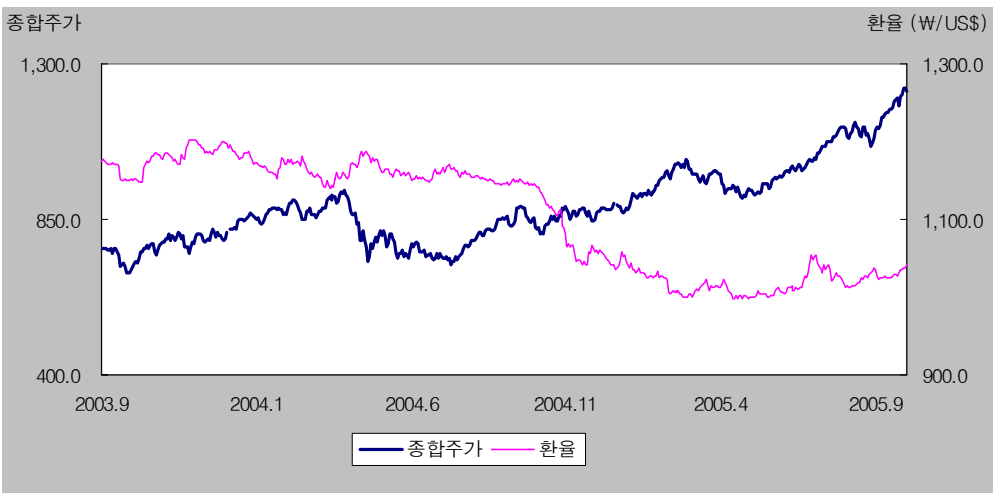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는 경기회복 기대,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지속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며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지난달에 비해 12.71% 상승한 1,221.01p 기록
- 코스닥지수도 종합주가지수와 동반 상승하여 8월말보다 13.49% 상승한 571.95p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은 9월초반 급락 후 지속적인 상승세

- 원/달러 환율은 월초반 미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부각으로 급락한 이후 월후반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과 허리케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승세 지속
-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에 비해 0.25% 상승하여 월말에 1,041.10으로 마감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신설법인 수 전 업종에 걸쳐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위주로 소폭 증가
 -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910개 업체로 지난해 8월 대비 6.0%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35.7%), 서비스업(11.2%)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22.4%)은 감소
- 서울 신설법인 수 전 업종에 걸쳐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86개 업체로 지난해 8월 대비 9.7%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55.1%), 제조업(7.4%), 서비스업(5.5%) 증가세 기록
-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
 -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는 1,352개 업체로 지난해 8월 대비 5.5% 증가
 - 세부업종별로는 통신업(225.0%), 교육서비스업(185.7%)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18.1%), 사업서비스업(-5.6%)은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 지속
-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증가
 -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달의 증가폭에 비해 그 폭이 주춤한 반면, 건설 및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
 -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고무 및 화학제품(233.3%), 섬유 및 가죽(34.6%), 출판 및 인쇄업(17.6%)만이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의 세부업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66.7%), 건설업(53.3%) 모두 큰 폭으로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 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690	4,479	3,910	220	6.0	-569	-12.7
서울	1,537	1,851	1,686	149	9.7	-165	-8.9
서비스업	1,282	1,403	1,352	70	5.5	-51	-3.6
제조업	148	265	159	11	7.4	-106	-40.0
건설 및 설비업	107	173	166	59	55.1	-7	-4.0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어음부도율 소폭 증가

○ 전국의 어음부도율 소폭 증가

-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방소재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도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0.01%p 증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80개 업체로 지난달 보다 32개 업체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 소폭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지난달에 비해 0.01%p 증가하며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5개 업체로 지난달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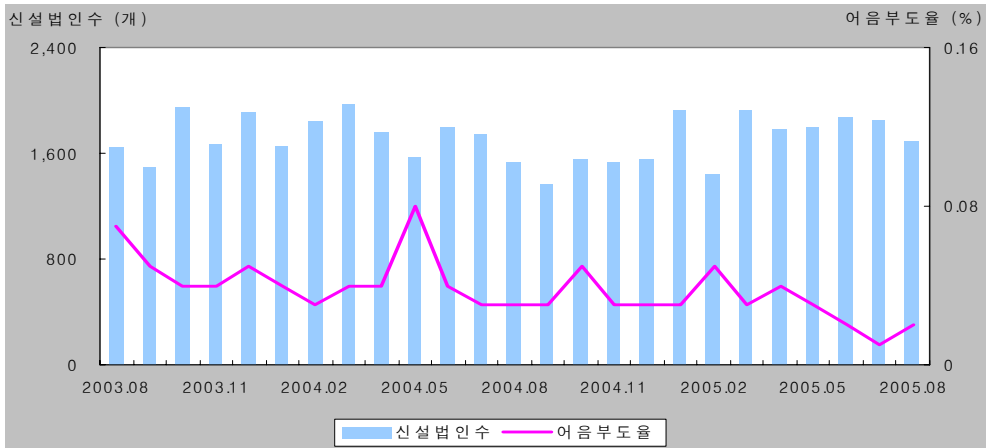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 %, %p)

구 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비 증감	전월비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5	0.02	0.03	-0.02	0.01
	부도업체 수	371	248	280	-91	32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2	-0.01	0.01
	부도업체 수	120	95	95	-25	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건 · 설 · 경 · 기 |

건축허가면적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하향폭 둔화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에 비해 1.2%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향세를 기록하였지만 하향폭은 큰 폭으로 감소
- 이는 대전(-85.9%), 인천(-78.2%)지역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원(235.7%), 광주(188.6%), 대구(143.7%) 지역 등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함
- 건설발주액은 지난해 8월에 비해 18.3% 증가하였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23.0%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로 반전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에 비해 3.3% 증가함으로써 지난달의 감소세가 1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61.6%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9.7% 감소함으로써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감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8,729	8,050	8,623	-1.2	7.1
서울		759	607	784	3.3	29.2
주거용	소계	139	172	224	61.6	30.2
	단독	9	17	12	31.7	-29.4
	연립	55	83	64	15.9	-22.9
	아파트	74	71	147	97.9	107.0
비주거용	소계	620	435	560	-9.7	28.7
	상업	394	253	449	13.9	77.5
	공업	69	60	1	-98.6	-98.3
	문교/사회	148	99	93	-37.1	-6.1
	기타	9	25	18	108.5	-28.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유형별로 모두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97.9%)의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짐
- 비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소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공업(-98.6%)의 감소폭이 큼

○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종로구의 건설경기 호조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8월에 비해 서초구(2,797.6%), 종로구(1,176.8%), 성북구(357.3%), 강북구(284.5%)에서 큰 폭 상승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상업용은 지난해 8월 대비 대부분 구의 감소 추세 속에 용산구(4,404.9%), 송파구(300.18%), 도봉구(120.8%), 동작구(104.5%)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증가세 유도

○ 건설발주액 소폭 상승

- 서울의 건설발주액은 8월중 소폭(8.3%)으로 상승하여 5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
- 서울의 건설발주액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 18.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민간부문 및 건축부문 발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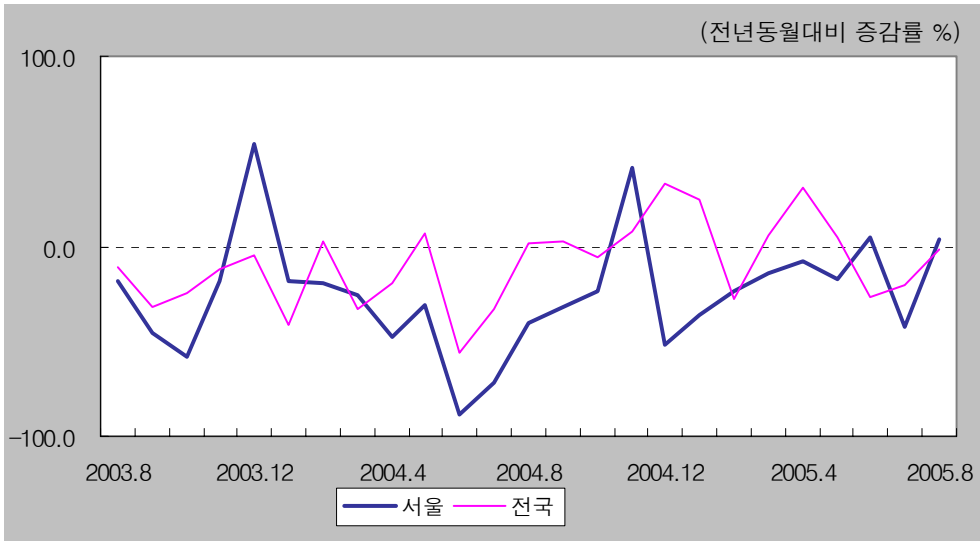
- 민간부문발주(20.8%)는 신규주택, 오피스텔, 학교 부문의 발주 증가로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발주(-28.2%)는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교량 부분의 발주 감소로 감소
- 건축부문발주는 8.8%, 토목부문발주는 9.2% 상승

〈표〉 건설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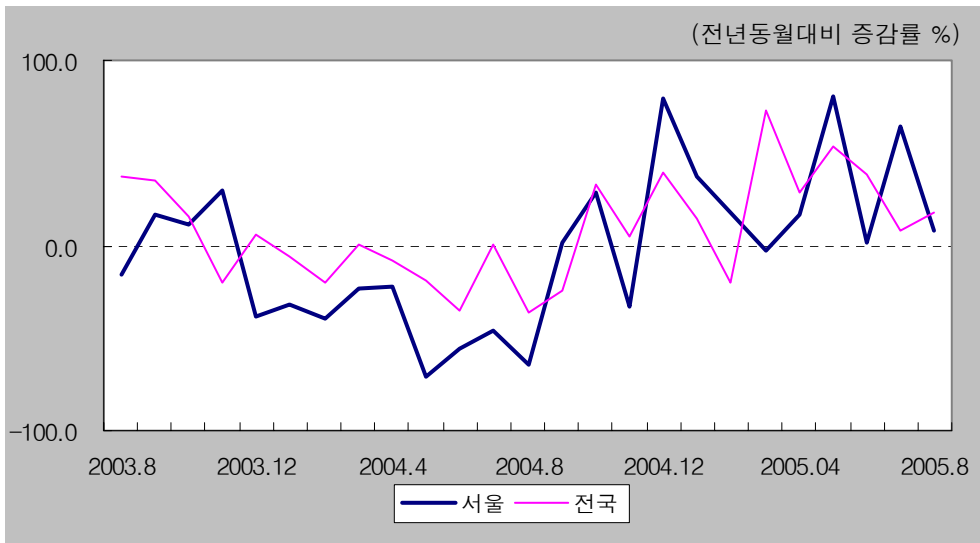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8	2005.7	2005.8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4,313,959	6,630,959	5,103,413	18.3	-23.0
서울		424,532	737,516	459,560	8.3	-37.7
발주자별	공공	61,553	33,891	44,204	-28.2	30.4
	민간	343,874	698,566	415,356	20.8	-40.5
공종별	건축	383,794	718,228	417,615	8.8	-41.9
	토목	38,083	11,652	41,582	9.2	256.9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부동산 가격 상승폭 크게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둔화

- 전국의 8월중 주택매매가격은 0.4% 상승하여 상승폭 둔화
- 정부의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수세가 관망세를 지속함으로써 상승폭이 둔화됨
-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 증가로 8월중 0.2% 상승함으로써 상승세를 이어감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크게 둔화

- 서울의 8월중 주택매매가격은 0.4%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크게 둔화됨
- 서울의 지역별 · 유형별 · 규모별 가격상승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큰 폭의 상승세 유지

- 강북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로 주택매매가격이 0.6%, 아파트 매매가격이 0.8%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감
- 주택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성동구(1.3%), 은평구(1.3%)의 상승폭이 크고, 중랑구(-0.3%), 동대문구(-0.1%)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매매가격은 구별로는 성동구(4.0%), 용산구(3.7%) 중구(2.1%)의 상승폭이 크고, 중랑구(-0.2%), 종로구(-0.1%)는 하락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국		-0.4	0.5	0.8	0.8	0.4
서울		-0.5	0.6	1.4	1.4	0.4
아파트(서울)		-0.6	1.0	2.2	1.9	0.4
지역별	강북	-0.3	0.3	0.3	0.7	0.6
주택매매	강남	-0.7	0.9	2.4	2.0	0.2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크게 둔화

- 강남은 주택매매가격이 0.2%, 아파트 매매가격이 0.2%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급격하게 둔화됨
- 주택매매가격은 구별로는 구로구(0.9%), 양천구(0.9%), 동작구(0.8%) 등이 상승한 반면, 강남구(-0.4%), 강서구(-0.2%), 강동구(-0.1%)는 하락세로 돌아섬
- 아파트 매매가격은 구별로는 동작구(1.2%), 영등포구(1.1%), 구로구(1.0%) 등이 상승한 반면, 역시 강남구(-0.4%), 강동구(-0.1%), 강서구(-0.1%), 서초구(-0.1%)는 하락세로 돌아섬

○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소폭 상승

-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 둔화에 반해, 주택 전세가격은 8월중 상승폭 증가
-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의 상승폭(0.3%)은 전국의 상승폭(0.2%)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강북은 0.2%, 강남은 0.3% 상승하며 동반상승세를 나타냄
- 구별로는 강동구(1.1%), 송파구(0.9%), 서초구(0.7%), 도봉구(0.7%)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구(-0.4%), 강서구(-0.3%), 금천구(-0.3%)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폭 증가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중 0.7% 상승
- 강북은 0.6%, 강남은 0.7% 상승함으로써 지난달에 비해 강북의 상승폭 증가가 두드러짐
- 구별로는 강동구(2.1%), 성동구(1.1%), 종로구(1.1%), 송파구(1.1%)의 상승폭이 크고, 서대문구(-0.1%)가 유일하게 하락한 곳으로 나타남

○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변동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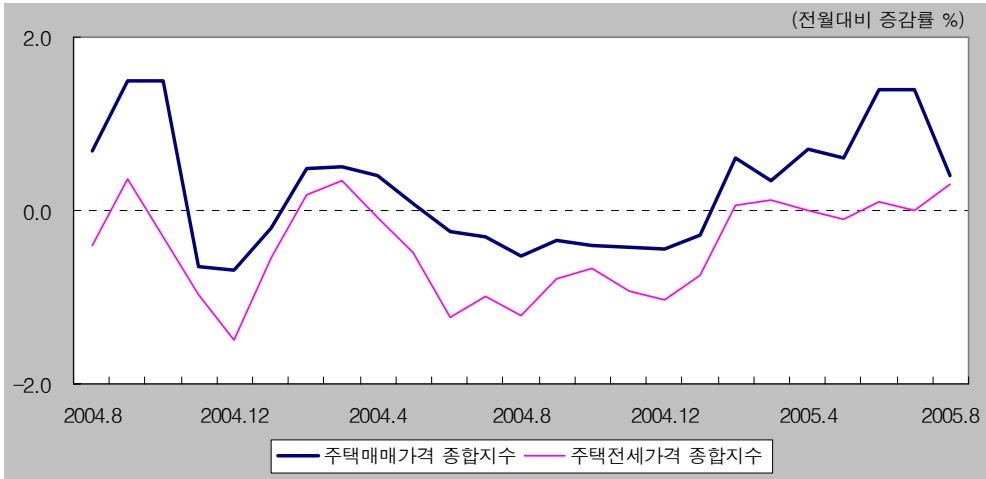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2%로 지난 7월에 비해 0.1%p 하락
- 강북은 0.1%p 하락한 반면, 강남은 0.1%p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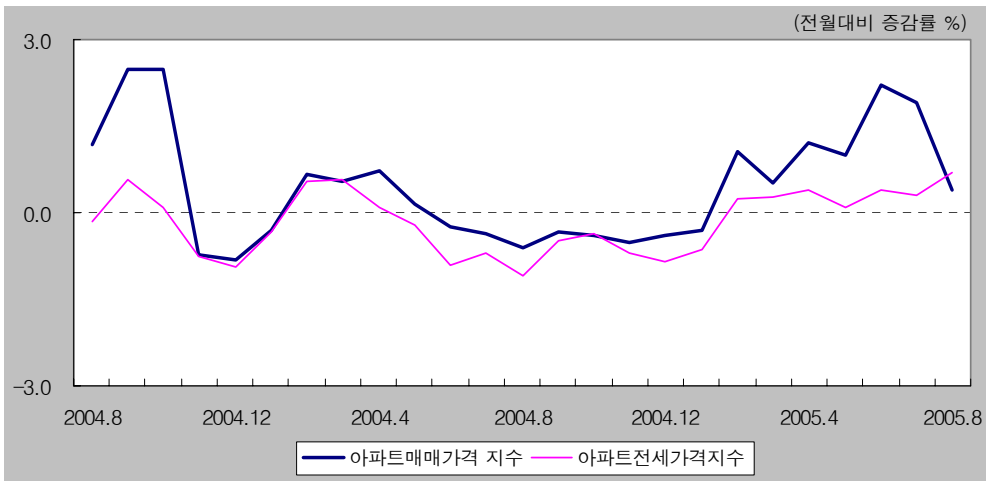
(2003.9=100.0, 단위: %)

구 분		2004.8	2005.5	2005.6	2005.7	2005.8
전국		-1.0	0.1	0.2	0.1	0.2
서울		-1.2	-0.1	0.1	0.0	0.3
아파트(서울)		-1.1	0.1	0.4	0.3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	-0.2	-0.2	-0.3	0.2
	강남	-1.4	0.0	0.4	0.3	0.3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